

전북 학생들, 글로벌리더 자질 키운다

美 워싱턴주에서 '글로벌 브릿지 캠프' 진행 중... 기관 방문·현지 학생교류 통해 글로벌 감각 키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피어스 칼리지(Pierce College)에서 '글로벌 브릿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캠프에 총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고 있다.

수업 후에는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미국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은 시애틀 항만청 방문한 한인 2세인 샘 조 시애틀 항만청 위원장으로부터 시애틀 항만청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관계, 유색인종 증처음으로 시애틀 항만청 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노력과 도전정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박미조 부 총영사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주재국과의 정치적 협력, 경제 및 문화교류 현황 등을 청취했다.

파이프 플레이스 마켓에서는 직접 물품을 구입하며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또 타코마 지역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다.

배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양병선 학생은 "현지 고등학생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돼 좋았다"며 "피어스 대학 사이언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좋은 만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피어스 칼리지(Pierce College)에서 '글로벌 브릿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본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공직자들, '청렴 실천' 결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공직자들 참석... 청렴의지 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본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 청렴 퍼실리테이터 위촉, 청렴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 청렴 퍼실리테이터 위촉, 청렴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청렴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당 요구나 지시 금지 △특혜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특히 청렴실천 숭수수범을 위해 서거석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 등은 '청렴'은 거리 두기, 청렴은 결여 두기'라는 청렴 슬로건을 외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양성된 '청렴 퍼실리테이터' 21명에 대한 위촉식도 가졌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으로부터 '전북교육청과 청렴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들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가족 모두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전북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초중고 학생 독서 생활화 동력 구축

전북자치도교육청-한국독서학회, 독서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독서학회(회장 김명순)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독서학회와의 업무협약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동력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독서학회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적인 학교 독서교육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여건 조성 △독서 지도, 독서문화 등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교류 활성화 △학생 독서 생활화 및 바람직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순 회장은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독서학회의 독서연구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근간이 되는 독서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교원들의 독서지도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교육대학원, IB 교육 관련 상반기 연수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원장 안진경 교수)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IB 교육을 위한 개념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설계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교육 역량과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춘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교육대학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 40명을 선

발하여 전북 미래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리더 양성을 위해 IB 교육을 위한 개념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설계로 총 30시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IB 교육은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의미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권산=이재훈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S등급'

전주대, 2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대는 2년 연속으로 S등급을 획득, 2024년 사업비로 총 116억4,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지원 대상 117개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학생과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학사구조로 개편한 점, 학생성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학생성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사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점,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성 기반 학생통합진단체계를 구축해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학생



의 소양 함양을 위해 맞춤형 기초 소양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 단계별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박진배 총장은 "'학생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학생과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바탕으로 학생성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대학-지역이 함께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대학 육성 성과평가 'A등급'

전주교대, 사업비 36여억원 확보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8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전통과 새로운 미래를 잇는 하이테크 기반 교육혁신'을 목표로 △유연한 학사 운영 △학생지원 및 관리 체계 △교육과정 수업 혁신에서 학생 선택권을 강조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사업비 36여억원을 확보했다. 박병춘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우수한 교



육혁신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유능한 초등교원 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내 최고 간호교육 기관 역량 입증

전북대 간호대학, 간호교육 5년 인증 획득... 4회 연속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정석희)이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교육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보건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 총 6개 영역에서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과 성과가 우수하다는 정부 인증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 간호대학은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인증한 간호교육 기관으로서 지역과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최대 인증인 5년 인증을 받은 전북대 간호대학은 이 인증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4회 연속 5년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간호교육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정석희 학장은 "이번 인증은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고 있는 전북대만의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4주기 인증을 통해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 글로벌 스탠더드 간호교육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간호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들, 상하이 찾아 역사의식 고취

'전대청춘' 프로그램 통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 탐방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전대청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상하이를 찾는다. 이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17년 시작돼 학생들에게 지역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동안 고구려 유적과 항일운동의 본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며 선조들의 지혜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웠다.

올해는 28명의 학생이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펼쳤던 선인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볼

예정이다. 또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뿐만 아니라 만공공묘, 김해산 선생 생가, 투산공원, 상하이 내에 있는 국내기업 등을 방문해 역사의식과 함께 글로벌 역량도 함양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발대식에서 양오봉 총장은 "전대청춘은 우리대학이 자랑하는 역사의식 고취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를 뜨겁게 보고 느끼고 싶은 여러분 미래에 큰 자산으로 삼길 바란다"며 "이국땅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